

‘호남 없인 대권 없다’ 총선정국 대선행보 ‘친문’ 결집 기대... ‘반문’ 정서 자극 우려도

■ 문재인, 호남방문 강행 배경·표심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북 등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4·13 총선 공천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번 호남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은 심각한 반문(반 문재인) 정서로 그동안 발도 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민주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가 핵심 지지 기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아킬레스 건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이번 호남 방문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그의 정치적 승부수로 앞두고 있다. 당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던 문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김종진 대표의 반대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호남 방문에 나섰다다는 점은 그만큼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호남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당장 문 전 대표는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 강한 반문 정서의 벽을 넘어서면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 전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반문 정서를 넘어설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호남 방문에서 특정 후보 지원보다는 호남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위로’, ‘사과’, ‘경청’의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저강도’ 해법으로는 강고하게 형성된 호남의 반문 정서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의 패권주의의 반대를 상징하는 호남의 반문 정서 자체가 국민의당을 만들어 내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또



뜻미지근한 행보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친다면 오히려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하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크다.

더민주 지도부도 우려섞인 눈길을 보이고 있다. 김종진 더민주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 “대통령 후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환상에 사로잡힌다”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의 더민주 후보들은 지난 6일 모임 갖고 문 전 대표가 시민에게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일부 후보들은 문 전 대표에 단식을 제안하는가 하면, 며칠이 걸리더라도 시민과의 소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대 이상 고령 유권자가 많은 전남 지역 구 더민주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선거 막판 국민의당 바람을 더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불출마’, ‘3보1배’, ‘단식’ 등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강도’ 해법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시간도 촉박해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판을 뒤엎는다는 우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가식적인 메시지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문 전 대표의 행보가 오히려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반문 정서가 호남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에 의해 부풀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문 전 대표가 진정성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그래도 더민주”라는 막판 민심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르포 하남산단, 삼성전자 일부 라인 베트남 이전 3개월 협력업체들 물량 감소에 ‘한숨’ 부동산 거래 ‘뚝’ 지역경제 위축

“광주시와 정치권 나서야”

대책 마련 촉구 한목소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라인 베트남 이전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생산 라인이 이전된 후 3개월이 지나면서 호남산단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지역경제도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 전자 협력업체 등이 몰려있는 이곳을 출근 시간임에도 내리는 봄비와 함께 적막 감마저 들었다. 평소 이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들 차량으로 북적 북적했던 하남산단 도로에 가뭇길 승용차만 오가고 있었다.

“삼성, 기아 아니면 광주는 먹고 살게 없는데 삼성이 빠지면 광주는 먹고 살기 힘들지요. 삼성은 맨날 라인 뺏고 하니 불안하죠.”

아직은 출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삼성 협력업체 직원 K씨의 말이다. K씨는 “예전부터 삼성전자 라인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난해 처럼 이미 옮겨 놓고 나중에 들들나고서야 발표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니 삼성에게 실망스럽고 화가난다”고 말했다. 그는 “광동산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납품량 감소에 일지리를 잃고 인건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 생활개선 전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지 3달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 생산 라인 해외이전 영향은 이미 분노와 걱정으로 지역 경제에 감속이 퍼져 있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하남산단과 진곡산단에 입주해 있다. 광주 삼성전자의 1·2차 협력업체는 120여개, 광주 삼성전자 가전사업 생산액은 2014년 기준 4조8000억원으로 광주 지역내 총생산(GRDP) 30조9000

억원의 15.5%에 이른다.

하남산단에서 만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씨는 “공정들이 예전에 비해 납품물량이 감소해 많이 타격을 받았다”며 “삼성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 하청업체들도 기아차, 동부대우전자 등으로 물량을 다변화하고 있다. 다들 어려운 것 같다”고 어두운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광주지역 경기는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무려 15.5% 감소했다. 수출도 전자전기(-27.6%), 자동차(-21.3%)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줄었다.

하남산단과 마주한 수완지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산라인이 줄어들고, 하청업체들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줄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이 곳 주변 경기가 안 좋은 건 꽤 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많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들의 불안한 태도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산구에 살면서 진곡산단 소재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삼성에서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중소기업들은 이미 3~4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번에는 저가형이 나간다”하면서 아이템 이름까지 이야기 해줬다”고 말했다.

B씨는 “이런 상황이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목을 다변화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시와 정치권에 대해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전투표 투표함 설치 4·13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3층 대강당 사전투표소에서 직원들이 기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일은 8일~9일까지 2일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승부는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선택 4·13 ㊤ 총선 D-5

접전 선거구 정당·후보들 지지층 끌어내기 총력전

4·13 총선을 앞두고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의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5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과 총선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를 이번 총선의 ‘1

차 승부처’로 보고 각자의 지지층을 상대로 사전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 투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의 주요 대상이 될 젊은층 공략과 함께 조직 및 지인들의 투표 참여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주목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지 못하면 판세를 뒤엎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투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유다.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4.9%에 머물렀지만, 같은 해 10·30 재보궐선거에서는 5.

5%로 소폭 상승했다. 이후 전국 단위선거로는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11.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역대 총선 투표율이 평균 50% 안팎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활성화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는 전체 총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과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에 따라 20~30대에서 정당 지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더욱 사전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3포 세대’의 초상... ‘30대 노처녀’는 옛말

인구 1000명당 혼인 5.9건 전남, 4.9건 전국 최저 여성 평균 초혼 연령 30대로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늘면서 지난해 혼인율이 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전남은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가 4.9건

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2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03년 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았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더욱 심각했다. 조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치를 기록했다.

평균 초혼연령에서는 서울이 남성(33.0세), 여성(30.8세) 모두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도보다 각각 0.2세 상승한 32.6세, 30.0세로 조사됐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0대에 진입한 것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9200건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환뉴스

영양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서삼석 후원회

2기호 서삼석

소름 처럼 거짓없는 정치

서삼석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 민선 3,4,5기 무안군수 / 제 5,6대 전라남도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영양군무안군신안군 지역위원장
- 전) 무안군장애인협회 후원회장
- 전)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포럼 사무총장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조빙객원교수

- 한국대학배우연맹 부회장
- 전남대학교 NGO학 박사,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 조선대학교 행정학 학사
- 무안 현경중학교 졸업,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후원자격 개인만 가능 (법인, 단체 명의 후원불가)

후원금액 1인당 500만원 이하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후원문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18번지
 TEL. 061-281-3310

후원계좌

농협
 302-1064-6417-81
 예금주: 박경민(서삼석후원회)

* 이 신문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정치자금 모금하기 위한 광고입니다.